



금융위원회

보 도 참 고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26.(수)	
담당 부서	자본시장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<총괄>	자본시장과	담당자	서기관	류성재 (02-2100-2651)
			사무관	신용진 (02-2100-2644)

오늘부터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.

- ◆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‘시장 안정 조치’에 따라,
- **오늘(26일)부터** 증권금융에서 **3조원+a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*** 본격개시
 - * 금일 중에만 3,000억원 이상 유동성 지원 예상
 - **내일(27일)부터** 산업은행에서 **2조원+a의 증권사 CP 매입 프로그램** 가동
- ⇒ 이에 따라,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던 증권사들은 **상황에 맞게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* RP·증권담보대출의 담보가 있는 경우 → 증권금융 RP·증권담보대출 프로그램
적격담보가 부족한 경우 → 산업은행 CP매입 프로그램

I 개 요

- 10.26일,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CFO 간담회를 개최하여,
- 지난 ‘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(10.23일)’시 발표한 ‘시장안정조치’ 집행방안*을 설명하고, 증권업계·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
 - * 금융위·금감원·금투협·증권금융 회의(금융위 자본국장 주재, 10.25일)를 통해 방안 확정

< 증권사 CFO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10.26.(수) 14:00~15:00 /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 자본시장국장,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, 금투협 대표, 증권금융 임원, 주요 증권사 CFO(15명) (총 20명)
- 논의내용 : 증권사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및 시중 유동성 상황 점검

< 한국증권금융(이하, 증금) >

□ 증금은 중·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RP, 증권담보대출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오늘(26일)부터 지원합니다.

○ 특히, 이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RP·대출 담보 대상 증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, 증권사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i) (RP) 국공채, 통안채, 은행채 외 회사채(AA이상) 신규 허용

ii) (증담대) 기존 RP담보, 상장주식 외 회사채(AA이상), CP(A1이상), ABCP(예금형), 증금채 신규 허용

▶ (금리) '시장금리+α' 수준 설정 → 가수요 차단

▶ (기간) 14일(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일부 1개월도 가능, 차환 가능)

○ 아울러, 현재 25조원 내외로 공급 중인 기존 RP·증권담보대출, 일일 할인어음 매입도 지속적으로 (차환) 공급함으로써, 금융투자회사들의 원활한 단기자금 확보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한국산업은행(이하, 산은) >

□ 산은은 지난 23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 중 우선 2조원을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하여 내일(27일)부터 가동*합니다.

*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순차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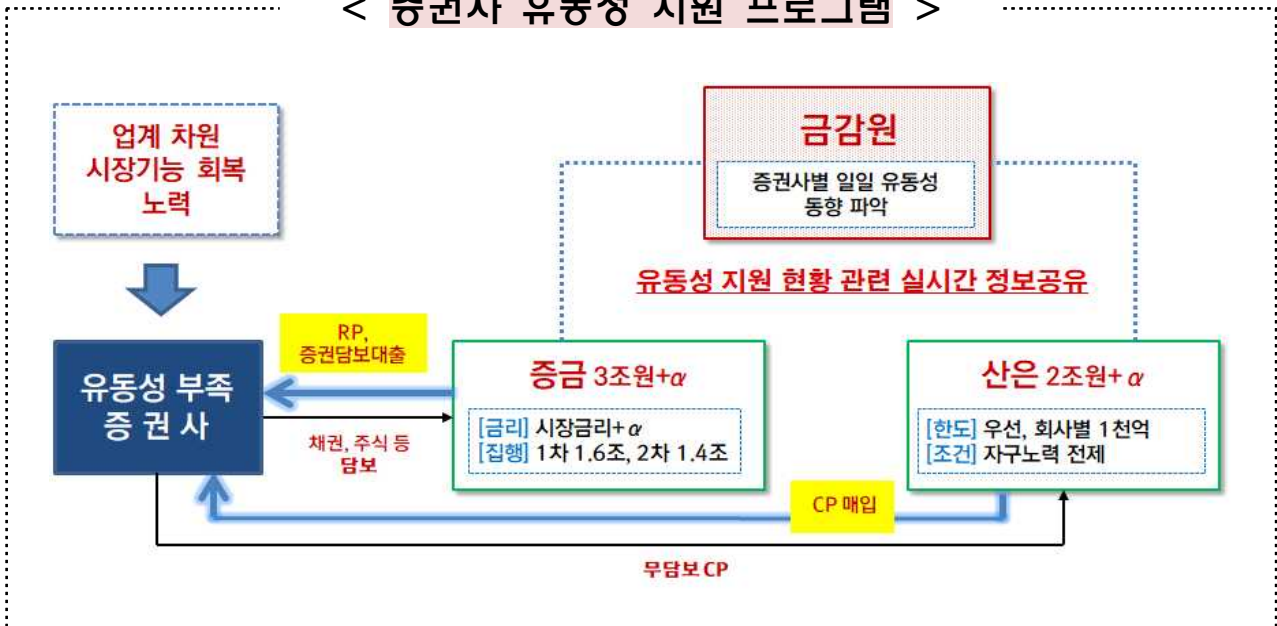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이번에 예외적으로 금융사 대상 CP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, 증권사 자구노력(확약서) 등을 전제로 자금이 지원됩니다.

< 업계 자체 시장 정상화 노력 >

□ 공적 지원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과 함께, 증권업계도 담보가 우량한 ABCP나 정상 CP는 최대한 자본시장 내에서 흡수함으로써,

○ 정상적인 단기자금 시장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고 시장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자율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<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>



III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, 증금·산은을 통한 자금지원 상황과, 증권사의 유동성 동향을 매일 점검하면서,
- 필요시,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여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서기관	류성재 (02-2100-2651)
			사무관	신용진 (02-2100-2644)
<공동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정태호 (02-2100-2861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선오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유석호 (02-3145-7595)
<공동>	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	책임자	전 무	이창화 (02-2003-9013)
		담당자	부 장	진양규 (02-2003-9100)
<공동>	한국증권금융	책임자	전 무	홍인기 (02-3770-8504)
		담당자	부 장	류정호 (02-3770-8530)
<공동>	한국산업은행	책임자	전 무	최대현 (02-787-6041)
		담당자	부 장	백준영 (02-787-6601)